

# “신입생 환영회 꼭 참가해야 하나” 불안한 학부모들 문의 빗발

###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 사고...광주·전남 대학들 고민

## “교내 아닌 외부행사 이유 뭐냐...당일치기로 열어라” 항의 행사 취소·장소 변경 모색...술자리 금지 등 안전대책 논의

지난 17일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사고로 부산외대생 등 10명이 숨지면서 광주·전남지역 대학들은 신입생 환영회 진행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교내에서 당일치기 신입생 환영회를 열기로 한 대학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외 행사를 준비한 대학들은 행사장소 변경 또는 취소 등 일정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특히 “어디로 가느냐. 신입생 환영회 참석이 의무냐”라는 학부모들의 문의가 빗발치면서 대학들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18일 현재 광주·전남지역 각 대학 중 교외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열기로 한 대학들은 장소 변경 또는 취소, 안전대책 등을 놓고 논의 중이다.

조선대 미대 등 두 단과대는 신입생 환영회 장소 변경 또는 일정 변경 등에 대해 논의 중이다. 이들 단과대는 예초 21일~22일, 26일~27일 1박 2일 일정으로 각각 남원 중앙콘도와 나주 중흥골프드라이프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할 예정이었다.

전남대 경제학과와 경영학부는 20일~22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화순·나주리조트에서 예정대로 신입생 환영회를 진행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은 별도로 마련키로 했다. 순천대는 20일~22일까지 예정대로 신입생 환영회를 하기로 최



는 학부모도 있었다.

학부모 이모(56)씨는 “신입생들에게 대학 생활을 안내하는 자리가 신입생 환영회인데, 굳이 먼 곳까지 갈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아무리 훌륭한 대책이 마련됐더라도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는 게 부모 마음이다. 교내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광주·전남지역 주요 대학들 상당수는 과거와 달리 교외보다 교내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여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비부담과 음주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동신대는 다음달 3일 교내 체육관에서 입학식 및 신입생 환영회를 함께 할 계획이다. 광주대는 이날 말부터 일주일 간 교내 강의실 등지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적성검사 및 문화탐방 등 교양필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신입생 환영회는 지난해부터 없었다.

동신대 관계자는 “올해 신입생 환영회는 교내 체육관에서 하는데,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학교 소개와 수강과목 신청 안내 위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과거엔 주로 콘도 등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했는데, 요즘은 교내에서 간단하게 진행한 뒤 마무리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중 결정했다. 다만, 술자리는 전면 금지키로 했다.

일부 대학들이 교외에서 예정대로 신입생 환영회를 강행키로 하면서 자녀를 갖 대학에 보낸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전화를 걸어 “교내가 아닌 외부에서 행사를 여는 이유가 무엇이나, 당일치기는 안 되느냐”라며 항의하는가 하면, “신입생 환영회에 자녀를 의무적으로 보내야 하느냐”라고 묻

## “꽃다운 나이에...가슴이 아려옵니다” 전국이 위로

### 인터넷선 추모·패우 기원 끔찍한 부상당한 학생들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길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 사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터넷과 SNS 등에서는 숨진 학생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부상을 입은 학생들에 대한 패우를 비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트위터 아이디 'kimmikyung365'씨는 18일 “부산외대 학생들, 꽃다운 나이에... 가슴이 아려옵니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트위터 아이디 'hosun1000'씨는 “경주리조트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합니다.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 아들들도 다른 곳에서 OT에 가 있었습니까 다만 대학생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너무 안타깝고 또 미안합니다”라며 불의의 사고를 당한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또 다른 사용자인 'eseongbuk'씨는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당사자인 부산외국어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고인이 된 꿈꿨던 우리 학생들과 그 외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패우

를 바랍니다”라며 대학 입학을 앞두고 희생된 학생들의 넋을 기렸다.

이번에 사고가 난 부산외국어대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킨 광주시 남구 한 학부모는 사고 소식을 접하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밝혔다.

고모(여·48)씨는 “딸이 OT에 가려고 했으나 눈이 많이 내려 위험할 것 같아 보내지 않았다”며 “딸을 보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부상당한 학생들이 하루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붕괴된 체육관 지붕이 붕괴된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사고 현장. (연합뉴스)

## 전남 작년 샌드위치 패널 화재 137건

### 구조 문제점 도마에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로 인해 샌드위치 패널 구조에 대한 문제점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샌드위치 패널은 두께 0.5mm 내외의 스테인리스 등 강판 사이에 목재나 스티로폼 등 다른 종류 재료를 샌드위치 모양으로 쌓아 올려 접착제로 접착한 특수 합판이다. 콘크리트 건물에 비해 제작 비용이 저렴하고 단열 효과가 좋은 데다, 공사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단열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당 1만4000원에서 2만 8000원에 불과, 체육관이나 조립식 창고 건축 등에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하중에 약하고 화재나 눈에 취약해 대형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이 잇따랐다.

전남소방본부는 지난해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 화재를 137건으로 집계했다. 특히 목조 건물이나 철근콘크리트 건물에 비해 인명 피해가 컸다. 지난해 전남지역에서 화재로 사망한 30명 중 5명은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번을 당했다는 게 전남도 소방본부 설명이다.

광주에서도 지난해 5월 6일 광주시 광산구 옥동 평동산단 내 보온재 제

### ? 샌드위치 패널

다른 종류 재료 샌드위치 모양으로 쌓아 접착한 특수합판.

화재와 폭설에 매우 취약, 사고나면 대형참사.

1000㎡이상은 불에 잘 안타는 난연기능 포함 불구 안지켜져.



지난 17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에서 학생들이 붕괴 직전 레크리에이션 무대 앞에 모여 있다. (연합뉴스)

### 가짜 고로쇠 약수 만들어 수억 부당이득 챙긴 30대 최고랑

○...값싼 단풍나무 수액에 지하수 등을 섞어 가짜 고로쇠 약수를 제조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30대 남성이 철창 행.

○...순천경찰에 따르면 이모(38)씨는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경남 거제와 양산지역에서 생산한 단풍나무 수액을 구입한 뒤 지하수·사카린

함유된 제품을 혼합, 가짜 광양 백운산 고로쇠 약수를 제조해 광양 백운산 일대와 순천 선암사 일대 식당 등 30곳에 1만5000여통(시가 5억10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

○...이씨는 순천에 건물을 임대한 뒤 대형 저수조와 18ℓ 짜리 물통 300개 등을 갖추고 가짜 고로쇠 약수를 만든 뒤 가짜 상표를 붙여 공급.

/순천=김은종기자 ejkim@

##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매매”

<b>15평(실 9평) 1세대</b> - 15층, 무등산 쪽, 주거겸 사무실 - 시세/감정가 4,500만원 - 급매가 3,500만원	<b>29평(실 18평) 3세대</b> - 10/12/13층, 하천 쪽, 주거겸 사무실 - 시세/분양가 1억원 - 급매가 6,500만원
<b>38평(실 22평) 1세대</b> - 2층, 하천 쪽, 사무실 전용 - 시세/감정가 1억 5,000만원 - 급매가 1억원	<b>53평(실 33평) 1세대</b> - 13층, 양동/하천쪽 코너, 전망좋은 - 사무실 전용, 을수리 - 시세/분양가 2억원 - 급매가 1억 5000만원
<b>77평(실 44평) 1세대</b> - 20층, 최상층, 전망좋은, 사무실 전용, 을수리 - 시세/분양가 3억원 - 급매가 2억 5000만원	<b>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b> <b>문의 010-4667-9300</b> - 관리비 평당 7,000원, 대형주차장 완비 - 개별 냉/난방 시설

## 경매 투자

▶ 경매 특수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특수물건만 취급

▶ 단독, 공동투자 가능

▶ 주1회, 3개월 완성

▶ 교육비, 1200만원 단, 상담후 본사 결정

(주)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 사정상 “매매”

### 순천지방법원 정문 농협 뒷 건물

- ▶ 대지 148P, 건물 480P, 5층 신축건물
- ▶ 감정가/시세-23억원
- ▶ 임 대- 보증금 3억원에 월1,400만원 예상(임대중) 2층 커피숍 임대 완료
- ▶ 대 출- 14억원(이자 월550만원)
- ▶ 매매가- 22억원(조정가능)
- ▶ 수 입- 5억원 투자에 월850만원

주인직매 H. 010-4667-9300